

AVENU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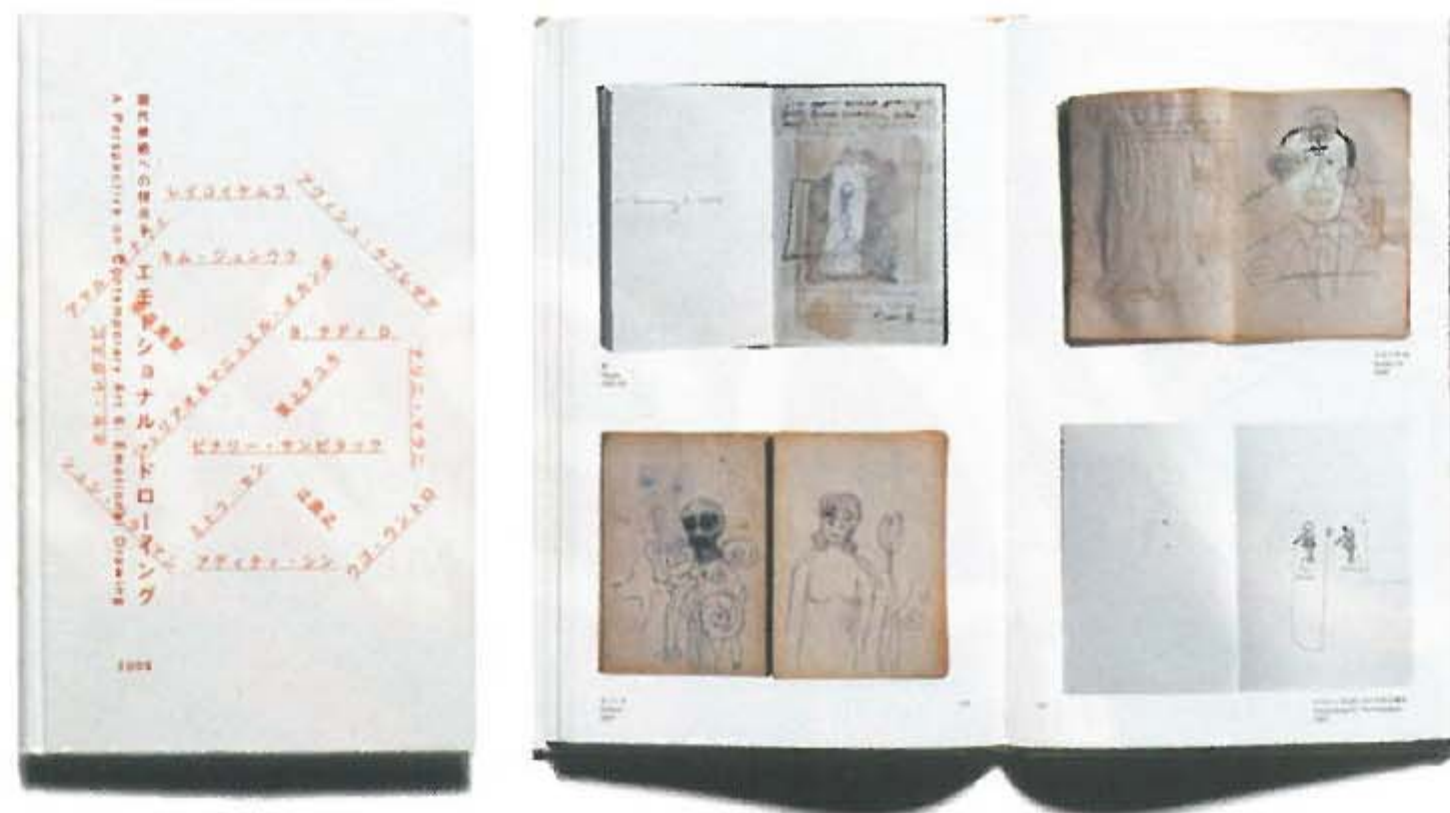
프리미엄 쇼핑 매거진 에비뉴엘 FEBRUARY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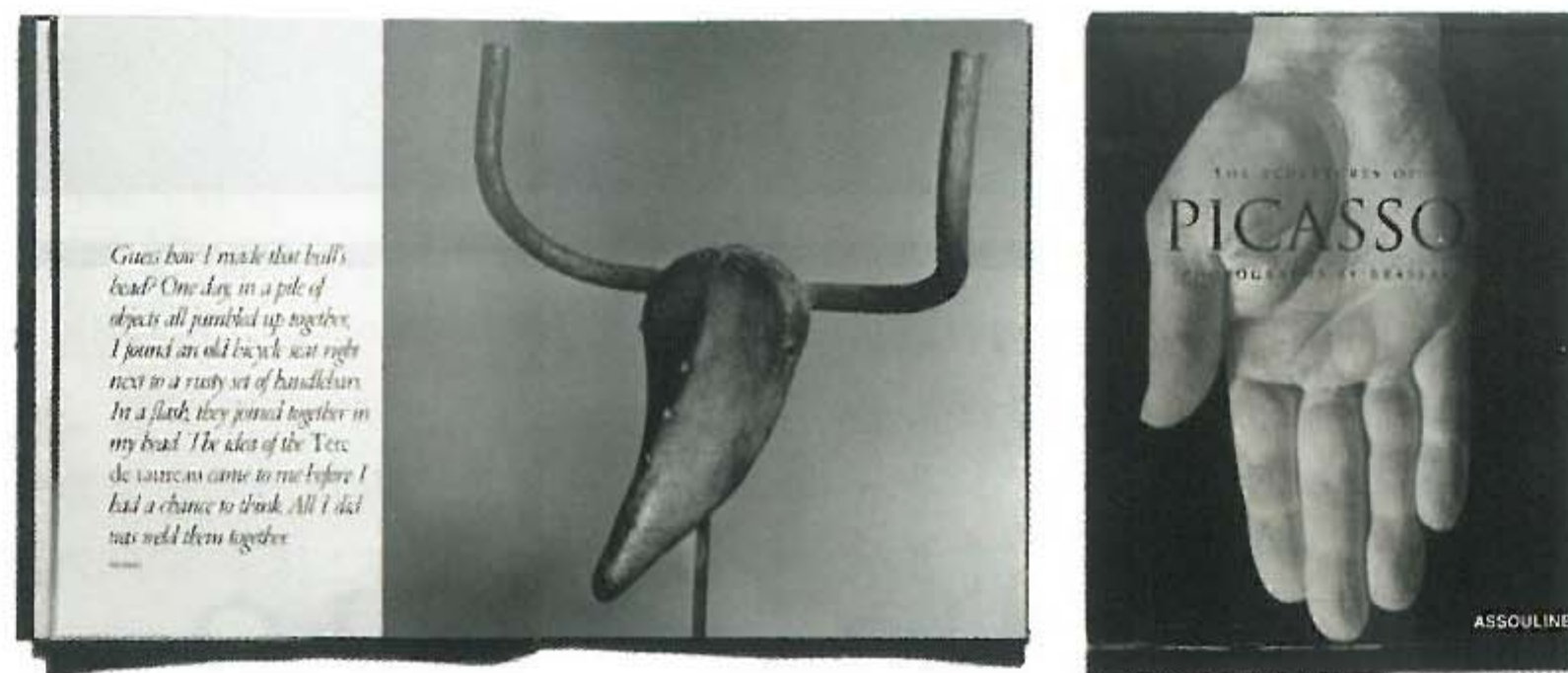
ARTISTIC
GENES



박미나 <ABCDEFGHIJKLMNPOQRSTUVWXYZ> | 이른바 '색칠공부 드로잉'이라 불리는 박미나 작가의 작품 시리즈는 규격화된 캔버스 위에 대량생산된 색연필이나 물감으로 그려진 것이다. 색의 레디메이드식 물성과 동시대 사회 구조에 따른 보편성까지 탐구한 작가의 작업이 한 권의 책 속에 일정한 규칙에 따라 편집되었다. 이 도록에 실린 도판은 모두 일정한 축적(1:6, 1:3, 2:3, 1:1)에 따라 배치됐는데 오른쪽 페이지 여백에 그 정보를 명기함으로써 실제 작품 크기를 유추할 수 있게 했다. 무엇보다 흥미로운 것은 작가가 16년간 수집하고 탐구한 '색칠공부 드로잉'이 두툼한 책 한 권으로 엮이면서 그 자체로 하나의 화집 형태를 갖췄다는 점이다. _손앰마(갤러리 엠 대표)



도쿄국립근대미술관 <Emotional Drawing> | 2008년 도쿄국립근대미술관에서 기획한 아시아 작가들의 드로잉 전시 책자다. 콤팩트하고 다소 터프한 질감을 살린 핸드북 사이즈의 작품집으로 마치 그림책처럼 정서적이고 내밀하게 교감할 수 있도록 디자인했다. 종이의 재질도 실제 드로잉 종이의 질감과 유사한 것을 채택해 섬세한 연필 자국이나 볼펜의 터치감 등이 생생하게 느껴진다. 전시를 기획한 큐레이터 호사가 겐지로는 동아시아와 중동아시아 나라들을 순방하며 작가들을 선별했는데 우리나라 작가로는 유일하게 김정욱이 포함됐다. 아시아의 신진작가들뿐 아니라 요시토모 나라와 같은 대표적 작가들도 참여해 드로잉이 설치미술, 영상, 조각, 회화 등 다양한 미디어로 확장되고 있음을 자연스럽게 보여주었다. _심소미(갤러리 스케이프 큐레이터)



피카소 <The Sculptures of Picasso> | 피카소의 기념비적 조각 작품들이 실려 있는 이 화집은 가로 32cm, 세로 42cm로 부피가 상당히 크다. 접지면을 제외한 세 모서리에 리본이 달려 있어 책을 열고 덮는 행위도 정성스럽게 느껴진다. 아트 북 부티크 애슬린이 제작한 이 작품집이 더욱 특별한 이유는 피카소 외에도 두 명의 걸출한 아티스트가 프로젝트에 참여했기 때문이다. 헝가리 태생의 프랑스 사진가 브라사이(Brassai)는 피카소를 알게 된 1932년부터 무려 14년 동안 그의 조각 작품을 촬영했다. 이 작업을 통해 두 사람은 조각과 사진이라는 장르가 어떻게 결합되고 새로운 예술을 탄생시킬 수 있는가를 경험했다. 독일의 화상이자 미술평론가인 다니엘 헨리 칸바일러가 쓴 감각적인 텍스트 또한 작품집의 밀도를 높인다. _김은주(디자인하우스 출판부 편집장)